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19년 하반기 재정집행 전북 군부 1위

부안군이 전북도가 실시한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군부 1위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재정인센티브로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전체 통계목과 2019년 4분기 소비·투자예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및 소비·투자예산 신속집행 실적을 각각 50%씩 반영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군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 7,380억원 중 5,880억원을 집행해 79.67%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소비·투자예산 신속집행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3,943억원 중 2,852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72.34%로 전북지역 군부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업경영인 정읍시연합회 코로나 기부 행렬 동참

(사)한국농업경영인 정읍시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코로나19 극복 기부 행렬에 동참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연합회는 10일 정읍시청을 찾아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내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2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구입·기탁했다. 연합회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모금한 100만 원에 김대선 회장이 100만 원을 쾌척해 마련된 기탁 물품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도시공원 방역

정읍시가 지역 내 도시공원 공중화장실과 어린이 놀이시설 방역 활동에 나섰다.

코로나19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해 공원 이용객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예비비 9천 2백만 원을 확보, 소독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수성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18개소에서 이용객의 접촉이 잦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주 3회씩 2개월간 방역 소독을 실시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여성친화도시 모델 만든다

고창군, 지역자원 활용 군단위 최초 '농촌형' 특화 이달부터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용역 6개월간 진행

고창군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농촌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만들기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고창군은 올해 여성친화도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5개 분야 28개 정책과제 8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핵심은 '대한민국 대표 농촌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만들기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2019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지정됐다. 도내에선 익산, 김제, 남원에 이은 4번째고, 군 단위에선 최초였다.

먼저, 군은 농어촌 혼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형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용역을 이달부터 6개월간 진행한다. 이를 도시개발, 공공시설 건축 등에 활용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에 편리하도록 도시 기반을 구축한다. 또 관내 경로당 60개소를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으로 운영한다. 귀농귀촌 세대와 다양한 여성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농촌지역의 대표시설인 경로당을 활용해 고창군 전체가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여기에 군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시를 위해 '군민참여단'도 대폭 확대된다. 3월초 현재 군민참여단을 지난 해에 비해 10명 늘려 43명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이밖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농촌여성 역량강화 및 농촌지원 소득화 사업, 여성노인 일자리 발굴 확대 등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대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역사회 안전 증진 사업으로 추진되는 '여성안심스마트 가로등 설치'와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등도 주목받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 아동, 노인을 아우르는 누구나 편안한 공간구상, 누구나 평등한 고창, 누구나 일상이 행복한 고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식초생산자협의회가 10일 오전 고창군수실을 찾아 복분자 식초 40병(15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복분자식초' 드시고 힘내세요

고창식초생산자협의회, 전북대병원 등 2곳 '응원의 선물'

"자연이 준 기적의 물 '식초'가 의료진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고창의 특산물인 복분자로 만든 식초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응원의 선물로 전달된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식초생산자협의회가 이날 오전 군수실을 찾아 복분자 식초 40병(15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와 힘든 싸움을 펼치고 있는 지역 의료진에게 전달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고창군은 전북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며 진료중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2곳에 전달하기로 했다.

천연발효 식초는 젓산이 피로회복을 도와주고, 유기산 성분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또 식초 같은 묽은 음식은 산성에 약한 바이러스를 이기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의료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 달 이상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전날(9일)에는 '대농양판'의 유상경 대표가 고창군보건소와 고창병원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에게 장어즙을 전달하기도 했다.

의료진은 "군민들의 격려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병원 '국민안심병원' 지정 | 기존 건강검진센터 업무 중단 외래진료 타 환자와 동선분리

의료법인석천재단 고창병원(이사장 조남열)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로부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본격 운영된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따른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호흡기 질환 환자를 방문 때부터 외래진료 모든 동선을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곳이다.

고창병원은 기존 건강검진센터의 업무를 중단하고 차단막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진료내과와 소아과를 설치하고, 코로나-19가 종식 때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호흡기 환자에 대한 진료를 시행한다.

고창병원의 국민안심병원은 진료실(2실)과 진료대기 공간, 호흡기증상 주사실, 원무과 수납 창구(1실) 그리고 영상검사실과 체열실로 구성했다. 의료진은 KF94이상의 마스크·고글 및 얼굴가리개·1회용 앞치마·라텍스 장갑 등의 방호복을 착용하고서 진료한다.

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 방지는 물론 감염 확산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병원 내방객과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병원 관계자는 "호흡기내과에 오는 모든 환자들이 쉽게 진료실을 찾을 수 있도록 병원 곳곳에 홍보물을 설치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의료법인석천재단 고창병원(이사장 조남열)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로부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본격 운영된다.

고창군 심원면 염전 어가 생존권 사수 성명서 발표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10일 '고창군 심원면 염전 어가 생존권 사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심원면 해안선 주변을 비롯한 염전부지는 고창군민이 가꾸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특히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재를 추진 중에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 및 에너지시설 허가

반대를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어가의 임대차계약을 협의 없이 연장하지 않았고 더욱이 임대업 폐업 신고를 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주) 2개사는 고창군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 불허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어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결사반대하며 △'토지주는 어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임대업 폐업 신고로 염전 어가의 산업전기 수전을 불가토록 하는 생존권 위협 행위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차단방역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심과 대책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최근 열린 주요 간부 회의에서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도록 코로나19 유입 차단 및 예방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만큼 군민들의 협력과 신뢰도 매우 중요하다"며 "군민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유입 차단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장애인구와 홀몸어르신 등 감염에 취약한 우리 주



변의 이웃들에게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힘든 상황이

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며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저력이 더욱 빛을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고 수준의 방역활동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도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안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추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